

# 기도의 회복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느헤미야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을 훈련하도록 권면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느헤미야 1:1~11

찬송 : 363장(통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 배경설명 :

바벨론 제국의 전쟁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70년 만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1, 2차 포로 귀환 내용은 에스라서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인 1-7장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을, 두 번째 부분인 8-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갱신과 그 후에 있었던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오늘 본문 1장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도움말 :

- 아닥사스다(1절): 바사(페르시아)제국의 아하수어로 왕의 아들이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한 왕이다.
- 수산궁(1절):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으로 따뜻한 기후의 페르시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여름 궁전은 시원한 고산지대인 악메다에 있었다.
- 기슬르월(1절):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11월-12월 사이이다.
-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2절):바벨론 포로 귀환 민들과 후손들.
- 경외하기를(11절, 히: 야레): 거룩함, 절대 주권, 선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으로서 공포심과는 거리가 멀다.
- 술관원(11절):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



##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경청합니다.



### 말씀 깨닫기

####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가 머물고 있던 바사 제국의 수산궁까지 먼 거리를 찾아온 하나니와 동료들을 대하여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1-3절)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즉 바벨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물었다.

#### ▶ 이 질문에 하나니는 어떻게 답했고, 그것으로 보아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니는 바벨론 귀환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묻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 설명한다. 즉,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답했다. 이러한 그의 답변으로 보아, 하나니가 그 먼 거리(1,300 마일 정도로서, 뉴욕에서 마이아미까지 정도의 거리임)를 마다하지 않고 동료 두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당시 바사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하나니는 약 13년 전 2차 귀환 때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한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당신이 큰 어려움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고 왜 그 사람을 찾아갔는지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니의 답변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4절)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 ▶ 그 당시 최고로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사의 고관(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시사해 줍니까?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제 1, 2차 포로 귀환 때 유다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반응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특별히 바사의 고위관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니와 그의 동료들은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다.

- ▶ **당신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직하게 나누어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3.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맨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5-7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칭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며 죄를 자복한다. 죄의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이다.

- ▶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왜 먼저 죄를 고백했을까요?(7-9절 참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사항(1):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의 죄로만 돌리지 않았다.

참고 사항(2):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했다(8-9절).

- ▶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며 간구했다. 8절에 나오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란 신명기 30:3-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흠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9절에 언급한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에서 인용된 내용이다(왕상 8:46-53 참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독백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권고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암울한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거나, 현재 붙잡고 기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보자.

#### 4.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칭했습니까?(11절)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먼 유다에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 온 하나니 일행(2절)으로 보인다.

#### ▶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함께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도움말 참조)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주야로 드린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보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겠는가?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보았다.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절대적 주권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알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싸울 것이고, 죄를 범했을 때 철저히 회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4절 참조). 따라서 그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 **당신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신앙 생활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도서 4: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시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참고로,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는 더 없이 중요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8-19)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1. **현재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런 후에,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요일 5:14-15 참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마 26:39 참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과 관련하여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알고 있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성경이 고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라고 가르쳐 준다.

**2.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우리 소그룹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같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과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